십자가와 교회(2)-교회는 대박

(마태복음 16:13~20)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2)-교회는 대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와 교회(2)-교회는 대박'
'대박'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 크게 이루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흥부놀부전에서 나오는 큰 박이 대박입니다. 그 박을 켤 때마다 금은보화가 잔뜩 쏟아졌던 것에서 기인한 말로 어떤 일에서의 큰 행운이나 성공을 일컫습니다.
'교회는 대박'이라는 말은 물론 놀부가 흥부를 보고 놀랐듯이 교회를 다니면 입 벌리고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다니거나 출석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당에는 다닐 수 있고 출석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시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출석하기 위해서 버스타고 전철을 타고 가야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시장에 있으면서 십자가 너머의 세상 밖으로 마음을 보낼 때에 바로 그곳이 교회이

고 내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에 따라오는 이미지는 예배당 건물이나 당회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여선교회나 남선교회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로부터 이어지는 부활과 승천이 떠올라야만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고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받치는 사건들을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공백을 채울 만족거리와 기쁨거리 찾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승진이든 어떤 것이든 내 마음에 기쁨거리와 만족거리의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야 말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죽음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면서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되새겨 보면 교회는 모임을 중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위한 모임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적은 무리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큰 숫자의 무리를 성공으로 여기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모임을 가질 때에 가장 전형적으로 올바르게 지속될 수 있는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마음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 안에 둠으로서 하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신앙고백 형태로 바꾸면 본문 16절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가정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사건 위에 교회가 세워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마음이 따라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상대를 향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이 이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고백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해석함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짓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9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두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논란을 종식시킬 수

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해불가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고백과 18~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염두에 두면서 해석하고, 교회가 왜 나에게 대박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속한다는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대박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부터 살펴봅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이 문장을 쉽게 풀이하자면 '요나의 아들(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대박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격한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의 어떤 면이 예수님의 격한 반응을 이끌어 냈던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는'이라는 부분은 '당신'이라는 뜻의 2인칭 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16절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두 내용이 붙어있는 고백입니다. 이 두 단어의 만남이 파격적입니다.
주석서들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부분은 주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부분은 주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보는데 맞는 해석이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수행할 역할의 내용에 대한 언급이 필요합니다.
즉 이 16절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또한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끊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맞지만 베드로의 고백의 의미는 단순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수행하실 역할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이때에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영적 수준에서는 16절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영적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 다윗 왕국

의 영광을 이 역사 위에 재현하실 분이십니다'라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대답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놀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수준을 가졌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 끝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규정하여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Credo)로서 '나는 믿는다.(I believ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심장을 꺼내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에게 우리가 할 일은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게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일이 내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인드 컬렉터(Mind collect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를 세금을 모으는 자라는 뜻에서 택스 컬렉터(Tax collector)라고 합니다. 마음을 수집해야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복으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행위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때에 아들 예수님에게 행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이 가져가신 내 마음에도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인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주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을 재현할 그리스도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마음을 채울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유대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자들이 있었고 메시아 운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이 세상 밖으로 뚫고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데려가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놀라시며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수준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자리에 우리 마음을 앉히는 것이라고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베드로의 마음속의 구원은 나라의 독립이고 다윗 왕 때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이었

습니다. 그럴 때에 혹시나 장관 자리라도 하나 차지하기를 바랐고 그로써 마음을 채워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깜짝 놀라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뒤의 20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제는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허락하실 구원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구원의 내용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수집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요청이 공생애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배부르게 살 것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도 인생을 그처럼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보내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으신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마음 채움의 꺼리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부활과 승천에 함께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들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베푸시는 모든 은총이 이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 채움의 상태인 구원을 이 세상의 경계 안에서 붙잡고자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오해의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교회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고 하고 이 세상 일이 형통해진다고 하고 사업이 잘 된다든지 무병장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엉뚱한 그리스도로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밖에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는 미동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소문을 거쳐 신촌으로 이어지는 대로 건너편을 보면 옛날에 우미 예식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끼고 동네로 들어가는 조그만 골목이 있었는데, 그 맞은편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만두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만두에 환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학교에 오시는 날에는 으레 정해진 코스로 고기만두를 먹여서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날도 어머니께서 오셔서 종례시간이 되기 전에 선생님과 만나시고 창문 안의 교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몰려들어서 뒤에서 저를 끌어안거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무척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종례가 끝나고 아이들이 나오자 제 옆에 있던 아이들 일곱 여덟 명을 다 부르셔서 만두집으로 데려가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만두를 사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되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까지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여시면서 예수님을 좋아하던 마음들을 다 천국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만두를 사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실 모든 혜택을 예수님을 좋아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아들의 자리에 마음을 머무르게 한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대박입니다.

이런 대박 사건에 대해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했지만 이는 곧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나 목사님과 총회장님 같은 분들에게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에게도 천국열쇠를 주십니다. 그 천국열쇠를 주시는 것이 무엇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교회는 대박이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규정한 이 고백은 탁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풀어서 나의 결심으로 삼고 의지와 소원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마음을 보내고 싶다'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원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전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지가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복들이 나의 복이 되는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대박 사건을 오늘 하루도 매 순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